

더불어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보도자료

단장: 서영교 부단장: 김병기, 한병도

위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균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이성운, 이연희, 허성무



김건희, 윤석열 체포되자 '총 안 쓰고 뭐했냐' 흥분!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

명태균게이트 실체 점점 드러난다! 오세훈 압수수색, 검찰은 날날이 수사하라!

● 윤석열, 김건희는 마치 테러리스트 같이 행동했습니다.

1월 15일 윤석열이 체포되자 김건희는 경호처를 향해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윤석열은 “총을 쏠 수는 없냐” 라고 물었고, 김성훈은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나서서, 총을 쏘라 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김성훈을 구속하라!

윤석열, 김건희는 비상 계엄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체포되지 않으려고 총을 쏘려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김건희의 이 충격적 발언은 최근 보도된 비상계엄 전 육군이 실제로 구입한
3천114개의 시신 수습 용도인 비닐백, 영현백을 떠오르게 합니다.
군은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1천여개의 대량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실제로 3천개 넘게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윤석열의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저 영현백이 실제로 쓰였을 것입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합니다.

김건희가 나서서 왜 총을 쏘지 않았냐고 화냈을 만큼
윤석열 정권이 모두 김건희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명태군에게 “넌 충성!” 하며 얻은 정권을 마음대로 휘둘러 공천에도 개입하고
국정 농단까지 일삼았고, 비상계엄의 끝에 결국 ‘총 쏘라’ 는 지시까지 했습니다.
모든 일의 끝에는 김건희가 있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오세훈 시장, ‘명태군 게이트’ 발 검찰 수사 쓰나미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군 사건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시청과
오세훈 시장 공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입니다.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일삼던 오세훈 시장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제껏 “명태군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 라고 딱 잡아 떼더니,
오세훈나경원안철수 후보 등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던 상황에
명태군이 오세훈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2021년 1월 25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측근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설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며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서울시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1.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나 받고
 2. 이 비용은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대납하도록 한 것이냐
- 는 불법과 위법 의혹 중심에 서 있습니다.

명태균씨는

1. 오세훈 시장을 7차례나 만났고
2.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세훈 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의 의혹을 낱알이 파헤쳐야 합니다.

압수수색 이후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당당하게 수사받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증거인멸임을 경고합니다.

●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차례입니다.

홍준표 시장을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 최용휘, 박재기 등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대가성 채용’ 등 쌓여있는 의혹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홍준표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은 판박이입니다.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 자신의 최측근을 통해 명태균 측에 최소 8차례 이상의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비용은 타인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입니다.
홍준표 시장 관련 사건은 대구지점으로 이송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렇다 할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은 홍준표 시장과 그 측근들을 낚낚이,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앞두고 극우가 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를 향해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총까지 쏘라 한 윤석열 부부, 극우를 선동하는
국힘당의 행태에 대한민국이 병들다 못해 굶아 터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군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모든 테러를
끊어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5. 3. 20.

더불어민주당 명태군 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

- 단장: 서영교
- 부단장: 김병기, 한병도
- 위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균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이성윤, 이연희, 허성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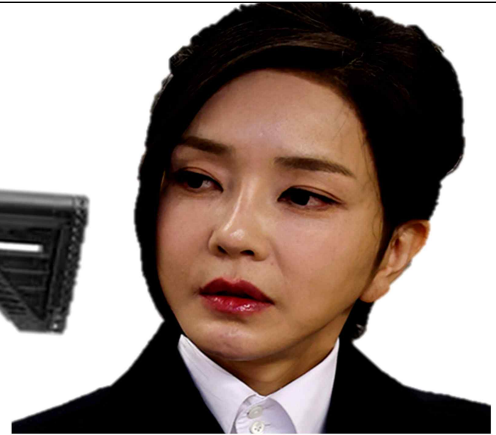
● 서영교 단장 모두발언

대한민국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해야 되는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경제는 곤두박질쳤습니다. 그런 사람이 불법 비상계엄을 했고, 불법 포고령을 내렸고, 국회를 점령하고,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고, 법관까지 체포해 수거해서 어찌면 살해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군에서는 시신을 감싸는 비닐백, 영현백을 3천 114개를 구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종이관은 도대체 뭐죠? 종이관을 1천 개 구매하려고 알아보며 주고받은 문자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모인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체포 후에 ‘이러라고 총을 든 거 아니냐, 총을 쏘지 뭐 했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들은 경호처 관계자가 윗사람에게 보고한 녹음이 포렌식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총을 쏘지 뭐 했냐, 이재명 대표 쏘고 자기도 XX하려고 했다’ 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드러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백혜련 의원이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극우로부터 계란 테러를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극우들이 혹시 계란이 아니라 돌을 던졌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게 흥기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계란만 갖고 있었겠습니까? 돌과 흥기는 안 가지고 있을까요? 모두 철저히 수사하고 현행범 체포하라고 촉구합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명태균 씨를 만난 적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 오세훈, 홍준표 그 부정과 부패의 사슬의 끝은 어디인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경호처에 실망했다.
총 그런데 쓰라고 놔뒀는데,
총 안 쏘고 뭐했느냐."

2025. 1. 15. 윤석열 체포 후 가족경호부 찾아가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

2025. 1. 15. 윤석열 체포 후 가족경호부 찾아가



오세훈·홍준표
명태균 게이트
철저히 수사하라!

헌재앞 극우 폭력 규탄한다

